KOSDAQ | 운송

레드캡투어 (038390)

안정적인 실적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체크포인트

- 레드캡투어는 1977년 범한여행사로 설립된 장기렌터카·기업출장 전문 기업으로, 2007년 2월 코스닥 상장사 미디어솔루션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함. 2025년 연결 매출액 3,656억원 기준 부문별 비중은 렌터카 89.2%, 여행 10.8%로 구성됨
- 동사의 투자포인트는 1) 렌터카의 안정성과 기업출장의 성장성, 2)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 동사 주가는 2022년 이후 PER Band 5.5x~15.0x, PBR Band 0.6x~1.2x 수준에서 형성. 현재 주가는 2026년 추정 실적 기준 PER 5.5x, PBR 0.8x로 과거 Band 하단에 위치함

주가 및 주요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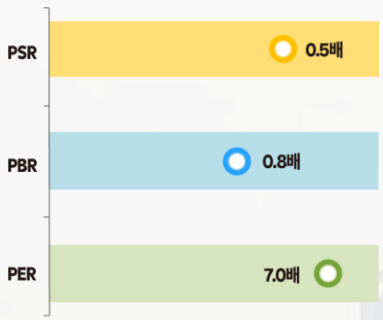


재무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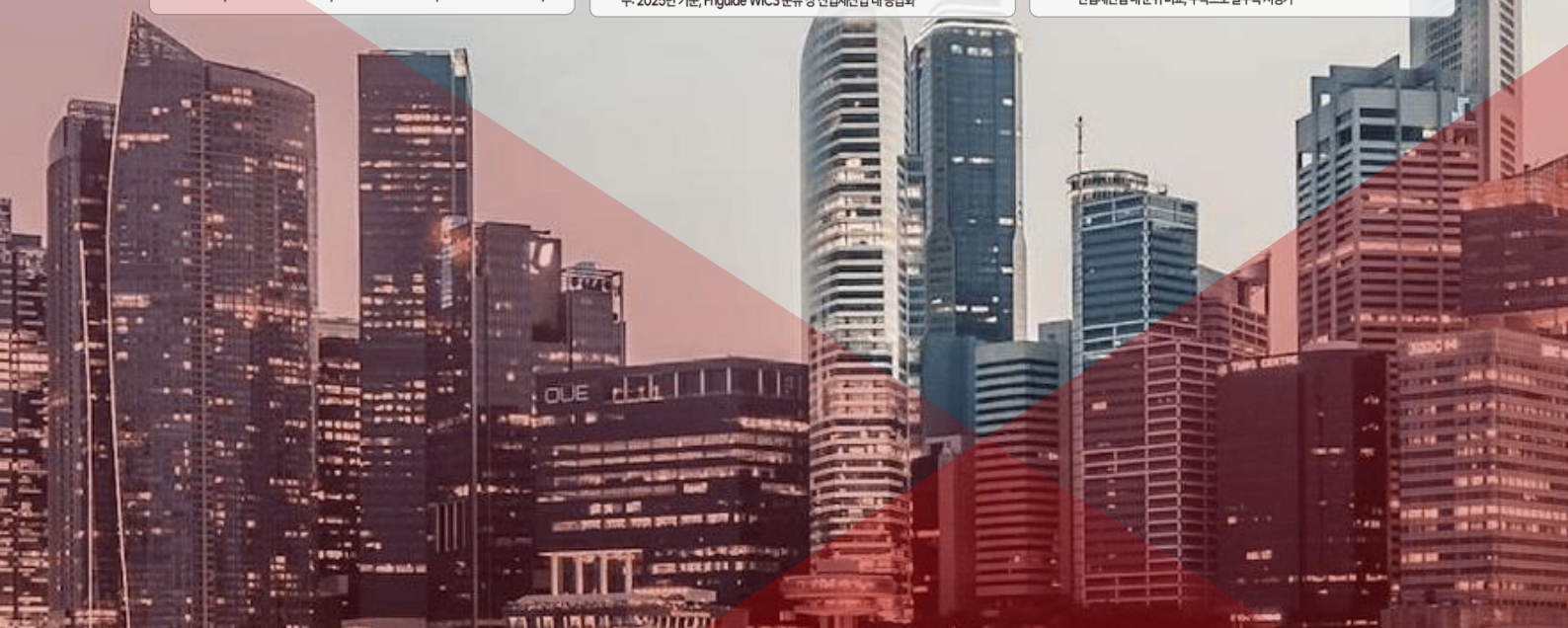


주: 2025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산업재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2Q26 기준, Fnguide WICS 분류상 산업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레드캡투어 (038390)

KOSDAQ

운송

Analyst 채윤석 chaeyunseok@kirs.or.kr
RA 정수현 sh.jeong@kirs.or.kr

장기렌터카와 기업출장 중심의 B2B·B2G 기업

레드캡투어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기렌터카와 기업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B2G 전문 기업. 2025년 매출 비중은 렌터카 89.2%, 여행 10.8%로 구성됨. 렌터카 매출액 3,259억원 중 차량대여수입이 59.4%, 중고자동차매매수입이 40.6%를 차지. 여행 매출액 397억원은 본사 68.8%, 자회사 레드캡마이스 31.2%로 구분됨

렌터카·기업출장 이익 기반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동사의 투자포인트는 렌터카의 안정성과 기업출장의 성장성, 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렌터카 부문 영업이익은 2019년 1분기 이후 30개 분기 연속 흑자이며, 2025년에는 401억원(+1.8%, yoy), 2026년 상반기 283억원(+3.9%, yoy)을 기록함. 여행 부문 영업이익은 2025년 66억원(+59.8%, yoy), 2026년 상반기 54억원(+29.1%, yoy)으로 증가함. AMEX GBT 한국 파트너 단일화 이후 2026년 상반기 송출인원은 13.1% 증가하였고, 항공매출 중 AMEX 거래처 비중은 24%에서 26%로 확대됨. 이익 증가는 배당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당기순이익이 2023년 166억원에서 2025년 237억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주당배당금은 450원에서 800원으로 확대되었고, 현금배당성향도 45.2%에서 56.5%로 상승함. 현재 주가 기준 배당수익률은 8.2%수준으로 예상(DPS 800원 기준)

'26년 실적 전망: 매출액 3,618억원(-1.0%), 영업이익 556억원(+18.9%)

2026년 실적은 매출액 3,618억원(-1.0%, yoy), 영업이익 556억원(+18.9%, yoy), OPM 15.4%(+2.6%p, yoy)로 전망됨. 매출액은 2025년 1분기 제주 단기렌터카 사업 매각에 따른 일회성 매출 146억원이 기저로 작용해 전년 대비 감소하나, 영업이익은 렌터카와 여행 부문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렌터카 부문 영업이익은 465억원(+15.9%, yoy)으로, 2023년 체결한 장기렌탈 계약이 2026년부터 만기를 맞으며 수익성 기준으로 선별한 계약 비중이 상승할 전망. 여행 부문 영업이익은 91억원(+37.4%, yoy)으로, AMEX GBT 거래처 이관 효과가 연간 온기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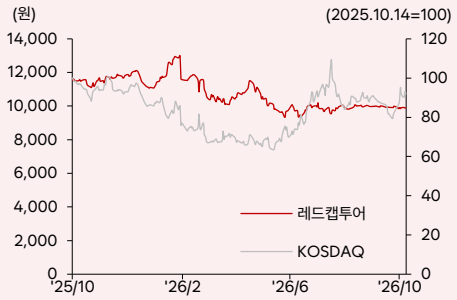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2,621	3,382	3,589	3,656	3,618
YoY(%)	14.5	29.0	6.1	1.9	-1.0
영업이익(억원)	363	388	436	468	556
OP 마진(%)	13.9	11.5	12.1	12.8	15.4
지배주주순이익(억원)	212	166	202	237	300
EPS(원)	1,236	968	1,183	1,416	1,797
YoY(%)	75.6	-21.7	22.2	19.7	26.9
PER(배)	7.7	8.1	7.3	8.1	5.5
PSR(배)	0.6	0.4	0.4	0.5	0.5
EV/EBITDA(배)	3.0	2.7	2.3	2.6	2.5
PBR(배)	0.8	0.7	0.7	1.0	0.8
ROE(%)	11.5	8.4	9.6	11.4	14.3
배당수익률(%)	4.7	5.8	25.0	7.0	8.2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0/23)		9,820원
52주 최고가		13,010원
52주 최저가		9,330원
KOSDAQ (10/23)		751.69p
자본금		85억원
시가총액		1,642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7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1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억원
외국인지분율		6.81%
주요주주	구본호 외 8 인	76.49%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	-7.7	-14.1
상대주가	4.6	38.7	-3.8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재고자산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연혁 및 지배구조

렌터카 및 기업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B2G 전문 기업

레드캡투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렌터카와 기업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B2G 전문 기업이다. 1977년 범한여행사로 설립되어 여행업으로 시작하였으며, 1997년 렌터카 사업에 진출하였다. 2004년 글로벌 No.1 기업출장 전문업체인 AMEX(American Express)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며 외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였고, 현재까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7년 2월에는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였으며, 사명을 레드캡투어로 변경하였다. 이후 기업 대상 장기 렌터카 사업을 중심으로 외형을 확대하며 렌터카 보유 대수는 2008년 5,000대에서 2017년 20,000대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기존 기업 고객 중심의 렌터카 사업을 공공기관으로 확장하는 한편, 2025년 2월부로 제주도 단기 렌터카 사업을 종료하는 등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장기 렌터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며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레드캡투어의 최대주주는 창업주인 고(故) 구자헌 회장의 아들 구본호(지분율 39.4%)이며, 모친인 조원희 회장(지분율 36.4%) 외 7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76.5%이다. 최대주주인 구본호는 직접적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동사는 전문경영인인 인유성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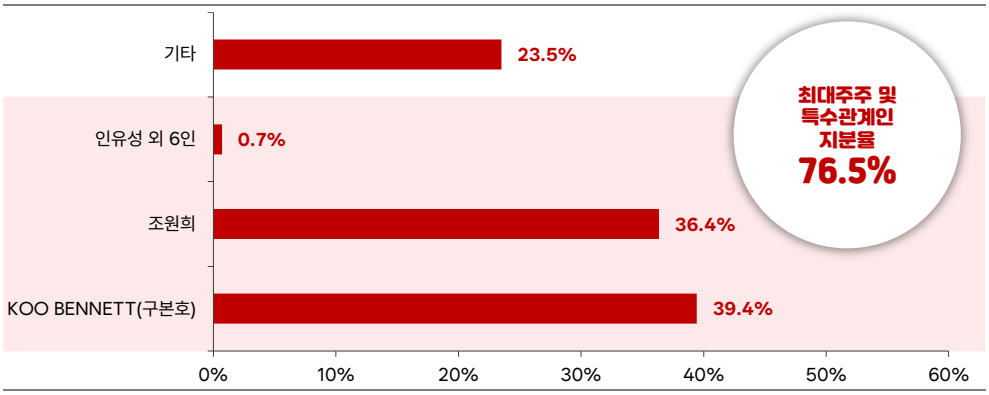
2026년 6월 말 기준, 레드캡투어의 종속기업은 지분 100%를 보유한 레드캡마이스 1개사이다. 레드캡마이스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국제회의 등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행사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행사 전반의 종합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61억원(-7.3%, yoy), 당기순이익 3억원(-34.0%, yoy)을 기록하였다.

연혁

1977~2006 사업 기반 확보		2007~2017 장기 렌터카 사업 중심의 외형 성장		2018~ B2B·B2G 서비스 강화	
1977	범한 여행사 설립	2007	사명 및 CI 변경	2018	레드캡 MICE 설립
1997	렌터카 사업 개시		코스닥 시장 상장	2019	BTMS 4.0 오픈
2004	Global No.1 출장여행사 AMEX와 전략적 제휴	2008	렌터카 5,000대 돌파	2022	'레드캡기업출장' APP 출시
2005	출장관리시스템(BTMS) 개발	2010	실시간 항공권 예약 어플 개발	2023	레드캡 모빌리티 비즈 출시
		2011	렌터카 10,000대 돌파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2014	렌터카 15,000대 돌파	2025	제주도 단기 렌터카 사업 종료
		2017	렌터카 20,000대 돌파		레드캡모빌리티 스마트 출시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 현황(2026년 6월 말 기준)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종속기업 현황(2026년 6월 말 기준) 및 1H26 실적 (단위: 억원)

기업명	지분율	소재지	주요 사업	자산	매출	순손익
주식회사 레드캡마이스	100%	대한민국	MICE 행사 종합 대행 서비스업	57	61	3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사업 현황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렌터카 89.2%, 여행 10.8%로 구성

동사의 2025년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은 렌터카 89.2%, 여행 10.8%이다.

1. 렌터카 사업 (매출 비중 89.2%)

2025년 렌터카 매출액은 3,259억원(+2.3%, yoy)이며, 차량대여수입 1,936억원(59.4%)과 중고자동차매매수입 1,323억원(40.6%)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량대여수입은 장기렌탈 계약 기간 중 받는 월 대여료와 차량 관리 등 부대 매출이다. 동사는 법인·공공기관·개인에게 3~5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하는 장기렌탈 상품만 운영한다. 렌터카 고객은 법인과 정부·공공기관 중심으로, 2026년 상반기 대여매출 기준 고객 비중은 B2B 71%, B2G 25%, B2C 4%이다. 주요 법인 고객은 LG전자·LG유플러스 등이며, 공공 조달에서는 2018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렌탈 재계약률은 90% 이상이다. 동사의 렌터카 보유대수는 2026년 6월 말 23,235대이다. 분기 말 보유대수는 규모 확대 영업전략을 시행한 2023년 9월 말 25,594대를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2024년 수익성 중심 영업전략을 시행하고 2025년 1분기 제주 단기렌터카 사업을 매각한 후 분기 말 보유대수는 22,297~23,235대를 기록하고 있다. 동사는 자체 경정비센터와 전국 25개 지점, 150개 정비 네트워크,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 고객에게는 차량 운용 현황·위치 관제·배차 기능을 통합한 RMS(Redcap Mobility Service) 앱과 전기차 배터리 관리 플랫폼 B-Lifecare를 제공한다.

렌터카사업 이익은 감가상각비와 만기 차량의 매각이익에 좌우되며, 2025년 렌터카 영업비용 2,858억원 중 감가상각비 1,453억원(50.8%)과 중고자동차매매원가 851억원(29.8%)이 80.6%를 차지하였다. 대여사업차량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3~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계약이 끝난 차량은 장부금액으로 재고자산에 대체된 후 오토핸즈·오토허브셀카·케이카 등 중고차 유통사에 매각되며, 매각 대금은 중고자동차매매수입, 장부금액은 중고

자동차매매원가로 인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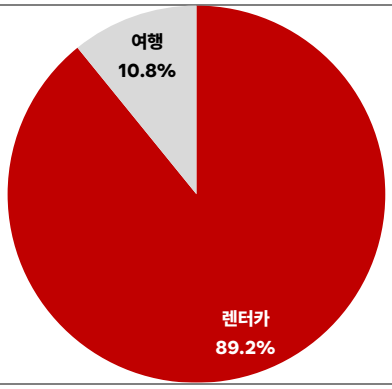
2. 여행 사업 (매출 비중 10.8%)

여행사업은 기업·기관 출장자의 항공권·호텔 예약대행과 기업행사 운영을 주력으로 한다. 2025년 여행 매출액 397억원(-1.6%, yoy)은 레드캡투어 273억원(68.8%)과 레드캡마이스 124억원(31.2%)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드캡투어는 항공권·호텔 판매와 여행알선에서 받는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순액 기준을 적용한다. 2026년 상반기 항공매출 기준 고객 비중은 B2B 71%, AMEX GBT(American Express Global Business Travel) 제휴 거래처 26%, B2G 3%이다. 동사는 2004년 American Express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이후 AMEX GBT와 제휴를 유지해 140개국 해외 네트워크와 외국계 기업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2025년 AMEX GBT가 한국 시장 파트너를 동사로 단일화하였고, 2025년 5월 거래처 이관을 완료하였다. 동사는 기업 고객의 출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출장관리 및 예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출장관리시스템 'BTMS 4.0'은 고객사의 출장 품의·결재부터 규정에 맞춘 예약, 경비 정산과 ERP 연동까지 출장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한다. 실시간 예약시스템 'OBT(On-line Booking Tool)'로는 항공권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예약하며, 2026년 5월에는 고객사 출장 규정에 맞는 항공편을 추천하는 AI 챗봇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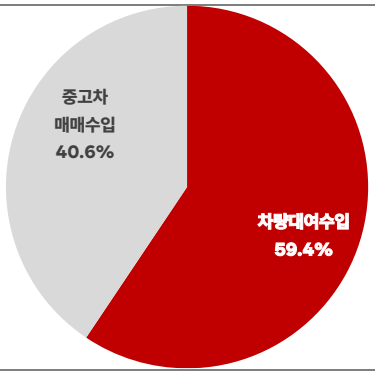
레드캡마이스는 동사가 2018년 4월 해외여행사업부의 MICE 사업을 분리해 설립한 종속회사로, 협력사·컨벤션뷰로(CVB)·호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업행사·심포지엄·인센티브 투어의 행사지 선정부터 사후 보고까지 운영 전반을 대행한다. 2025년 동사의 행사 건수는 645건이며, 해당 이벤트알선수입은 총액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한다.

2025년 사업부문별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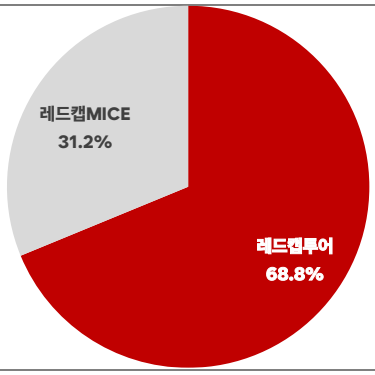
자료: 레드캡투어,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렌터카 부문 매출 구성



자료: 레드캡투어,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여행 부문 매출 구성



자료: 레드캡투어, DART,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국내 렌터카 시장 현황

국내 렌터카 등록 대수는 2025년 115.4만대(+5.0%)로 캐피탈사 중심으로 증가

렌터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으로, 대여기간 1년 미만의 단기렌터카는 여행·출장, 보험대차 등이 주요 수요처이며, 1년 이상의 장기렌터카는 법인 업무용 차량과 개인의 차량 구매 대체 수요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2025년 말 기준 승용 렌터카는 113.6만대(98.5%)이며, 승합차는 1.7만대(1.5%), 특수차는 242대(0.02%)이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장기렌터카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2019년까지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였다. 렌터카 등록 대수는 2012년 30.8만대에서 2019년 85.5만대로 연평균 15.7% 증가하였으며, 2013~2019년 연간 증가율은 12.4~18.4%를 기록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개인의 차량 구매 대체 수요가 증가하며 장기렌터카 시장이 확대되었다. 장기렌터카는 초기 차량 구매비용과 보험·정비 등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할부금융·자동차 리스의 대안으로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렌터카 사업자들이 보유 차량을 확대하였으며, 캐피탈사들도 기존 자동차금융 고객과 자동차 판매 영업망을 활용해 장기렌터카 사업에 진출하였다.

렌터카 등록 대수는 2020년 이후에도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2023년 0.6%까지 하락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증가율은 8.2%로 낮아졌으며, 2021년 7.7%, 2022년 6.4%로 둔화되었다. 특히 2021~2022년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이 렌터카 사업자의 차량 확보에도 제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에는 주요 사업자의 차량 공급 조정으로 증가율이 추가 하락하였다. 롯데렌탈은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유 대수를 0.8만대 감축하였으며, SK렌터카 계열도 SK네트웍스의 기존 장기계약 차량 감소로 보유 대수가 0.8만대 줄었다. 캐피탈·카드사 6곳의 증가 대수 역시 2022년 3.7만대에서 2023년 1.3만대로 축소되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차량 취득 및 자금 조달비용 부담이 주요 사업자의 증차 속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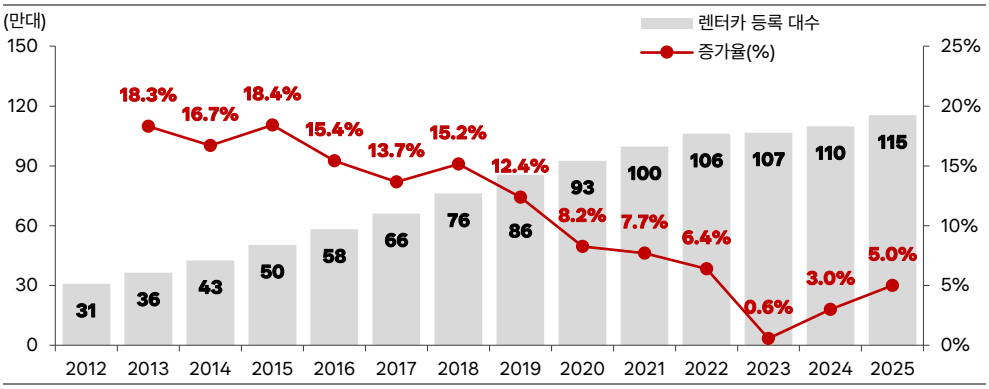
렌터카 등록 대수 증가율은 2024년 3.0%, 2025년 5.0%로 상승하며 2023년의 둔화 국면에서 벗어났다. 등록 대수는 2024년 109.9만대에서 2025년 115.4만대로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최근 시장 확대에는 캐피탈사의 장기렌터카 차량 공급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내수시장 정체와 자동차금융 시장의 경쟁 심화로 캐피탈사들의 수익 기반 다각화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기존 할부금융·리스 외에 장기렌터카 상품과 차량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말 차량 대수 기준 전국 장기렌터카 시장점유율은 롯데렌탈 21.79%, SK렌터카 16.51%, 현대캐피탈 14.66%로 상위 3개사가 52.96%를 차지한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합산 점유율은 2020년 37.73%에서 2024년 38.30%로 0.57%p 상승하였다. 상위 10개사 중 7곳은 캐피탈·카드사이며, 레드캡투어는 2.23%로 9위이다.

장기렌터카 상위 2개사의 최대주주는 사모펀드로 변경되었거나 변경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2위 사업자인 SK렌터카를 인수하였다. 2025년 3월에는 1위 사업자인 롯데렌탈의 지분 63.5%(유상증자 신주 포함)를 확보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2026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SK렌터카와 롯데렌탈 간 직접 경쟁이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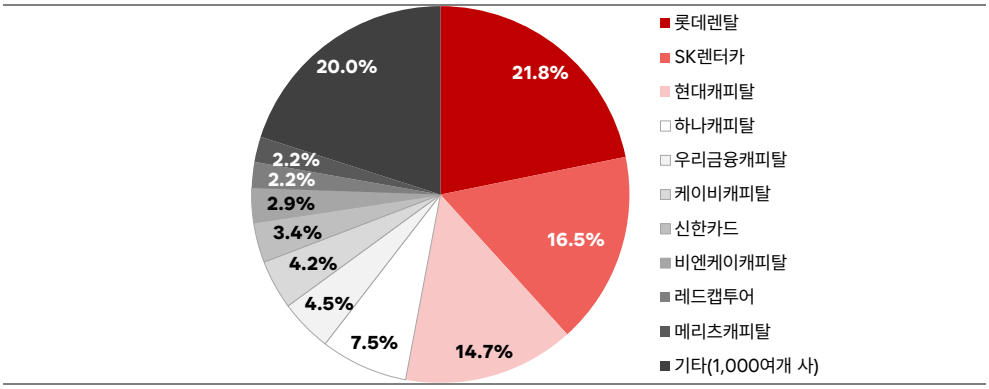
멸되면 단기·장기렌터카 요금이 모두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 어피니티 측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금지하였다. 롯데렌탈 최대주주 측은 2026년 8월 사모펀드 TPG 계열 렉시콘코리아홀드코와 지분 61.17%를 주당 59,00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2026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는 TPG의 국내 사업(사모투자·영유아 영양식품기업 에이치비에프앤비 보유)이 렌터카와 보완·대체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 취득을 승인하였다. 거래는 2026년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종결될 예정이며, 종결 이후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은 각각 어피니티와 TPG 계열이 지배하는 경쟁사로 남게 된다.

렌터카 등록 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024년 말 장기렌터카 시장점유율(차량 대수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글로벌 기업출장 시장 규모와 주요 사업자 현황

2025년 글로벌 기업출장 지출 1조 5,900억 달러를 기록, 글로벌 주요 사업자는 레드캡투어의 글로벌 파트너사인

글로벌 기업출장 지출은 2000년 6,320억 달러에서 2025년 1조 5,90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장기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경기 변동과 대외 충격에 따라 지출 증가율은 변동하였다. 2001년 지출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9·11 테러로 11% 감소하였으나, 2003~2008년에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하였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약 18개월간 지출이 감소하였으며, 2010~2011년 회복 이후에는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2012~2016년 연간 증가율은 3.2~6.2%를 기록하였다. 2017~2018년에는 세계 경기의 동반 성장과 미국의 감세, 주요 신흥국의 경기 회복으로 2년 연속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

AMEX GBT

록하였다. 2019년 지출은 10년 연속 증가해 코로나19 이전 최고치인 1조 4,3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0~2019년 CAGR은 5.1%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글로벌 기업출장 지출은 6,610억 달러로 53.8% 감소하였다. 2021년에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지역별 백신 접종 격차로 증가율이 5.4%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이연된 출장 수요와 경제 여건 개선으로 지출이 47%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세계 경제 안정과 잔여 이연 수요 회복으로 지출이 30% 증가하였다. 2024년 명목 지출은 1조 4,680억 달러로 2019년을 2.7% 상회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을 제외한 주요 출장 시장도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중국의 지출은 2019년의 약 96% 수준을 기록하였다. 2025년 지출은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활동과 하반기 무역 갈등 완화, 달러 약세에 따른 일부 지역의 환산 효과를 포함한 환율 변동 등이 반영되며 전년 대비 8.4% 증가한 1조 5,900억 달러로 추산된다. GBTA는 2026년 글로벌 기업출장 지출이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7,1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 출장 건수는 2025년 18.2억 건에서 2026년 18.4억 건으로 1.3% 증가하는 데 그쳐, 지출 확대에는 출장 수요 증가보다 항공료 등 건당 출장비용 상승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초 이란을 둘러싼 중동 분쟁은 항공·교역·에너지 시장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항공편 우회 운항에 따른 이동 시간 증가와 항공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GBTA는 2026년 중동 지역의 출장 건수가 전년 대비 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해당 전망은 하반기 중동 정세 안정과 항공 운항망의 점진적인 정상화를 전제로 산출되었다. 지역별로는 한국의 기업출장 지출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해 주요 15개 시장 중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글로벌·다국적 기업 대상 출장관리 시장의 주요 업체는 AMEX GBT(American Express Global Business Travel), BCD Travel, CWT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단일 출장관리 기업에 연간 2,500만 달러 이상의 출장 거래를 맡기는 글로벌·다국적 기업 고객의 2023년 거래액 기준 점유율은 AMEX GBT 30~40%, BCD Travel과 CWT 각각 20~30%로 나타났다. FCM·Navan·CTM의 점유율은 각각 5% 이하이다. 해당 점유율은 대규모 글로벌·다국적 기업 고객에 한정된 수치로, 전체 출장관리 시장에는 수백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상위 10개 출장관리 기업의 2024년 거래액 합계는 약 990억 달러로 추산된다. 출장관리 기업의 거래액(Total Transaction Value, TTV)은 항공·호텔·철도·렌터카 등의 예약 금액을 의미하며, 비관리형 출장과 식음료·개인 차량 비용까지 포함하는 글로벌 기업출장 지출과는 집계 범위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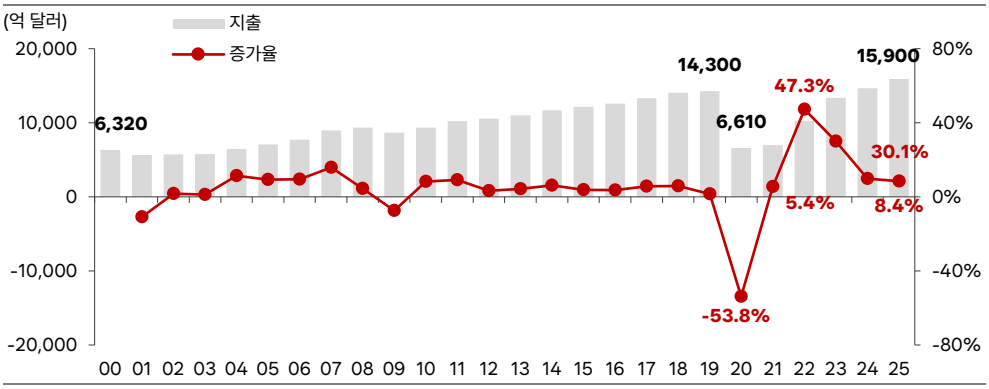
AMEX GBT는 2025년 9월 세계 3위 출장관리 기업 CWT의 인수를 완료하였다. 미국 법무부는 양사의 결합이 글로벌·다국적 기업 대상 출장관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2025년 1월 인수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다. 반면 영국 경쟁시장청은 CWT의 경쟁력이 과거보다 약화되었고 고객에게 다른 대안이 있다고 판단해 2025년 3월 인수를 승인하였다. 이후 미국 법무부가 2025년 7월 소송을 취하하면서 AMEX GBT는 같은 해 9월 인수를 완료하였다. 2026년 5월에는 Long Lake가 AMEX GBT의 운영사인 Global Business Travel Group을 주당 9.50달러에 현금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해 9월 29일 약 63억 달러 규모의 인수가 완료되었으며, Global Business Travel Group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고 비상장회사로 전환되었다.

AMEX GBT의 2025년 매출 중 79%는 출장 거래(예약·변경·취소·환불) 처리 관련 매출로, 고객사가 지급하는 예약

대행 수수료와 항공사·호텔 등 공급사가 상품 유통·판촉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가 중심이다. 공급사 수수료는 대체로 예약 물량에 연동되며, 글로벌 유통 시스템(Global Distribution System, GDS) 사업자가 공급사로부터 수취한 유통 수수료의 일부를 플랫폼 이용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나머지 21%는 거래 건수에 직접 연동되지 않는 상품·전문 서비스 매출로, 고객사 전담 상담 인력 운영 관리비, 회의·행사 기획·운영 수수료, 출장 정책 설계 등 컨설팅 수수료, 출장관리 도구 구독료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출장관리 기업의 매출은 전체 출장 지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예약·처리 건수와 고객사별 수수료 계약 조건, 관리 서비스 이용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AMEX GBT는 49개국에 직접 진출해 있으며, 그 밖의 국가에서는 현지 출장관리 기업으로 구성된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 진출한 49개국은 세계 기업출장 지출의 약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파트너는 AMEX GBT에 고정 수수료나 거래 기반 수수료를 지급하고 글로벌 고객사의 해당 국가 출장 서비스를 담당하는 독립 사업자이다. 한국에서는 레드캡투어가 AMEX GBT 고객사의 출장 서비스를 맡으며 다수의 외국계 기업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레드캡투어는 2004년 6월 American Express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였으며, AMEX GBT는 글로벌 인수합병으로 분산되어 있던 국내 파트너십을 레드캡투어로 통합하고 2025년 5월 거래처 이관을 완료하였다.

글로벌 기업출장 지출 추이



자료: GBTA(Global Business Travel Association),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안정적인 실적 성장

안정적인 렌터카 실적과 성장 중인 여행 부문

동사의 투자포인트는 1) 장기렌탈 사업구조에 기반한 안정적인 렌터카 실적, 2) AMEX GBT 파트너십 통합을 통한 기업출장 사업 확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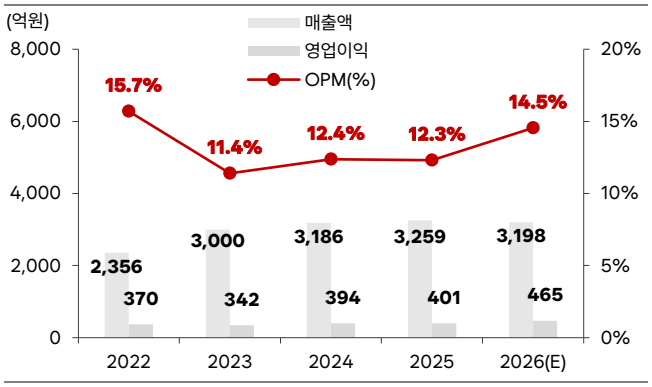
1) 장기렌탈 사업 구조에 기반한 안정적인 렌터카 실적

동사의 렌터카 부문은 차량 운용 규모 확대를 통해 매출 기반을 확충한 이후 수익성 중심의 영업전략으로 전환하며 이익 창출력을 강화하였다. 렌터카 부문 매출액은 2019년 2,108억원에서 2025년 3,259억원으로 6년 연속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차량대여수입은 1,384억원에서 1,936억원으로, 중고자동차매매수입은 706억원에서 1,323억원으로 확대되었다. 차량 운용 규모 확대에 집중한 2019~2023년에는 보유 차량 대수가 36.6%, 렌터카 부문 매출액이 42.3% 증가하였다. 기체결된 장기렌탈 계약에서 향후 수취할 대여료를 의미하는 리스료 잔액도 같은 기간 64.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연 219~370억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수익성 중심의 영업전략으로 전환한 2024~2025년에는 보유 차량 대수와 리스료 잔액이 각각 9.9%, 17.7% 감소하였으나, 영업이익은 연 344~394억원(2025년 영업양도수익 57.2억원 제외)을 기록하였다. 동사는 2019년 1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30개 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유지하였으며, 해당 기간 분기 영업이익 최저치는 2021년 4분기 36억원이다. 2024~2025년 감소했던 리스료 잔액은 2026년 다시 증가하여 6월 말 3,420억원으로 2025년 말 대비 8.1% 확대되었다. 기체결된 장기렌탈 계약에 따른 대여료 수입이 향후 매출 기반을 뒷받침하며, 수익성 중심의 차량 운용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2) AMEX GBT 파트너십 통합을 통한 기업출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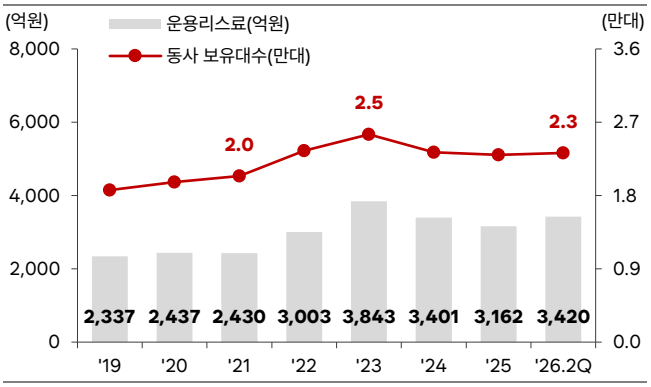
동사의 여행 부문은 AMEX GBT 파트너십 통합에 따른 외국계 기업 거래처 확대와 국내 기업의 출장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2025년 AMEX GBT가 한국 시장 파트너를 동사로 단일화하고 같은 해 5월 거래처 이관을 완료하면서, 항공매출 중 AMEX 거래처 비중은 2025년 상반기 24%에서 2026년 상반기 26%로 2%p 상승하였다. 주요 고객사의 출장 수요 확대와 반도체·K-컬처·뷰티·푸드 등 다양한 산업의 신규 고객사 유입으로 2026년 상반기 송출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3.1% 증가하였다. 2026년 상반기 여행 부문 실적은 매출액 221억원(+5.8%, yoy), 영업이익 54억원(+29.1%, yoy)을 기록하였다. 자회사 레드캡마이스 매출액이 61억원(-7.3%, yoy)으로 감소하였으나, 본사 매출액이 160억원(+11.7%, yoy)으로 증가하며 부문 매출 성장을 견인하였다. 기업출장 수요의 기반이 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국외 자회사·관련회사 수는 2006년 5,175개에서 2024년 10,138개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 가동 중인 외국인투자법인 역시 2006년 말 6,573개에서 2025년 말 10,182개로 늘어났다.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확대는 해외 출장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 증가는 AMEX GBT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거래처 확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렌터카 사업부문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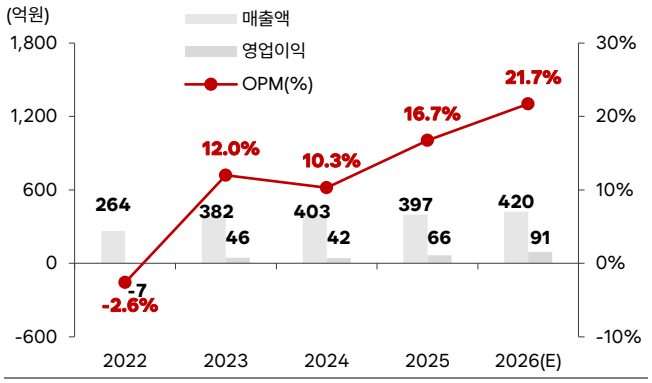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존 계약에서 받게 될 운용리스료와 동사 렌터카 보유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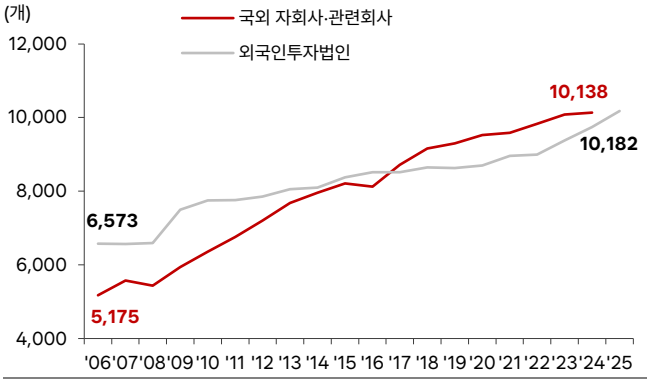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여행 사업부문 실적 추이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외 자회사 · 관련회사와 외국인투자법인 수 추이



주: 1) 국외 자회사 및 관련회사 2025년 자료는 미발표, 2) 국외 자회사·관련회사는 기업활동조사 대상 기업(상용근로자 50인 이상·자본금 3억원 이상 회사법인, 도소매업·서비스업·기타 서비스업은 50인 미만이어도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면 포함)이 출자비율 20% 이상으로 보유한 국외 법인 수
3)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법인으로 국세청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법인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2026년 추정 DPS 기준, 현재 예상 배당수익률은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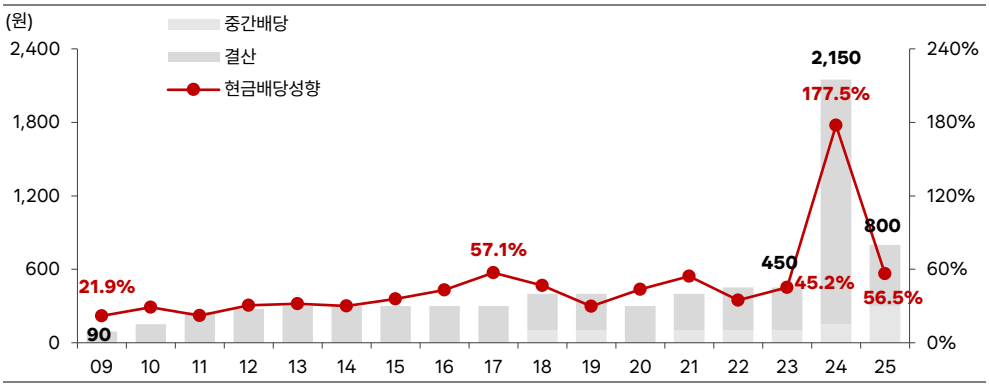
동사의 두 번째 투자포인트는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다. 2025년 주당배당금(DPS)은 800원으로 2023년 450원 대비 77.8%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현금배당성향은 45.2%에서 56.5%로, 현금배당수익률은 5.8%에서 7.0%로 상승하였다. 2025년 배당금은 분기배당 300원과 결산배당 500원으로 구성되었다. 2026년 분기배당은 전년과 동일한 주당 3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연간 DPS는 800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가 기준 예상 배당수익률은 8.2%이다.

동사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과 자본준비금 감액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하였다. 2024년 11월 보유 자기주식 229,069주(발행주식총수의 2.7%) 전량을 소각하였으며, 주식 유동성 확대를 목적으로 100%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4년 자본준비금 48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재원으로 2024년 결산배당 주당 2,000원을 지급하였다.

동사는 과거 실적 변동에도 일정 수준의 현금배당을 유지하였다. 2013~2017년 연결 당기순이익이 158.5억원에서 85.6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DPS는 300원을 유지하였으며 현금배당성향은 31.7%에서 57.1%로 상승하였다. 2020년에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 부문이 영업손실로 전환되고 연결 당기순이익이 111억원(-50.1%, yoy)으로 감소하였으나, 연간 DPS는 300원을 유지하였다. 자본준비금 감액 재원을 활용한 2024년을 제외하면, 2009~2025년 현금배당성향은 21.9~57.1%, 현금배당수익률은 1.9~7.0%를 기록하였다.

동사는 배당 절차 개선을 통해 주주의 배당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3년 결산배당부터 결산배당 3회와 분기배당 2회의 배당액을 배당기준일 이전에 확정하였으며, 2025년 3월에는 정관을 개정해 분기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사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25년 결산배당을 받은 주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3월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도 영업이익 증대와 예측 가능한 주주환원 지속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주당배당금과 현금배당성향 추이



주: 2024년 DPS는 자본준비금 재원 결산배당 2,000원 포함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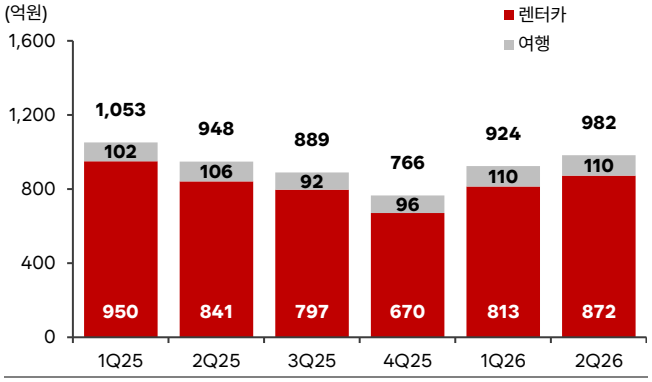
1 2025년 실적 Review

2025년 매출액 3,656억원(+1.9%), 영업이익 468억원(+7.4%) 기록

동사의 2025년 실적은 매출액 3,656억원(+1.9%, yoy), 영업이익 468억원(+7.4%, yoy), OPM 12.8%(+0.7%p, yoy)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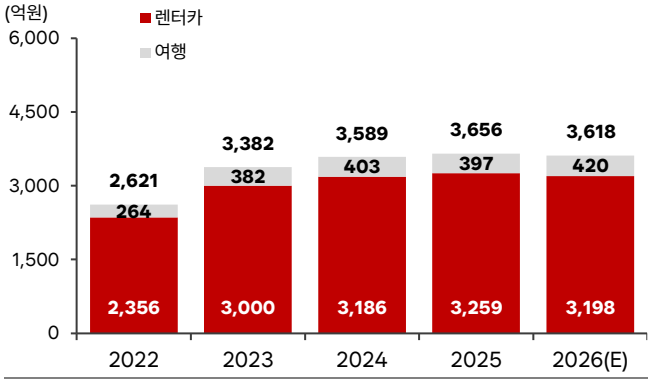
부문별로는 1) 렌터카 부문 매출액은 3,259억원(+2.3%, yoy), 영업이익은 401억원(+1.8%, yoy)을 기록하였다. 중고자동차매매수입은 1,323억원(+16.2%, yoy)으로 증가하였고, 차량대여수입은 1,936억원(-5.4%, yoy)으로 감소하였다. 중고자동차매매수입에는 1분기 제주 단기렌터카 사업 매각에 따른 일회성 실적(매출 146억원, 영업이익 83억원)이 포함되었다. 차량대여수입 감소는 B2C와 제주 단기렌터카 매출 축소(대여매출 중 B2C·제주 비중 2024년 14% → 2025년 7%)에서 발생하였다. 2) 여행 부문 실적은 매출액 397억원(-1.6%, yoy), 영업이익 66억원(+59.8%, yoy)을 기록하였다. 매출액은 본사 273억원(-2.2%, yoy), 자회사 레드캡마이스 124억원(-0.2%, yoy)을 기록, 주요 고객사의 출장 수요가 감소한 본사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비용 측면에서는 SW 관련 무형자산상각비가 26억원에서 8억원으로 감소하며 여행 부문 OPM은 16.7%(+6.4%p, yoy)로 개선되었다.

분기 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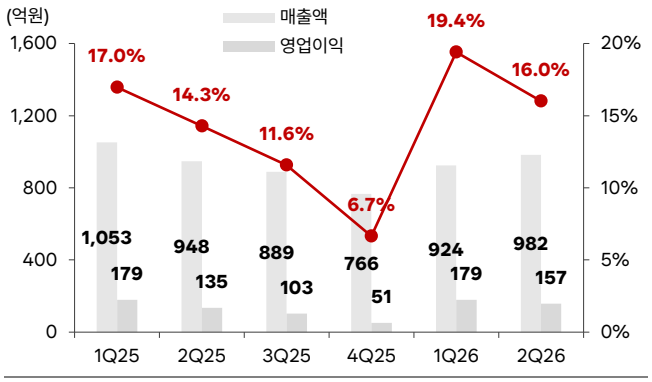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부문별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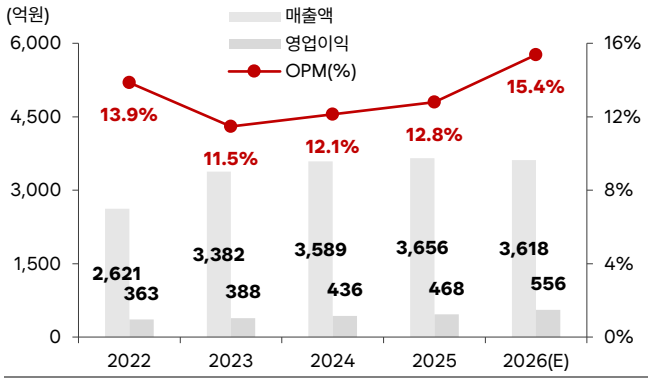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 영업실적 추이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영업실적 추이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2026년 실적 전망

2026년 실적은 매출액 3,618억원(-1.0%), 영업이익 556억원(+18.9%)으로 추정

동사의 2026년 상반기 실적은 매출액 1,906억원(-4.7%, yoy), 영업이익 337억원(+7.2%, yoy)을 기록하였으며, 연간 실적은 매출액 3,618억원(-1.0%, yoy), 영업이익 556억원(+18.9%, yoy), OPM 15.4%(+2.6%p, yoy)로 전망한다.

부문별로는 1) 렌터카 부문 매출액은 3,198억원(-1.9%, yoy), 영업이익은 465억원(+15.9%, yoy)으로 추정한다. 매출액은 2025년 1분기 제주 단기렌터카 사업 매각에 따른 일회성 매출이 기저로 작용해 감소하나, 영업이익은 2024년부터 시작된 수익성 중심 영업전략의 효과가 본격화되며 증가할 전망이다. 규모 확대 전략을 시행한 2023년 체결한 3~5년 장기렌탈 계약이 2026년부터 만기를 맞아 수익성 기준으로 선별한 계약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 여행 부문 매출액은 420억원(+5.9%, yoy), 영업이익은 91억원(+37.4%, yoy)으로 전망한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AMEX GBT 거래처 이관 효과가 연간 온기로 반영되고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분기 실적 Table (단위: 억원)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매출액	942	903	831	913	1,053	948	889	766	924	982
렌터카 사업부문	830	799	745	811	950	841	797	670	813	872
여행 사업부문	112	103	86	101	102	106	92	96	110	110
영업이익	130	122	100	84	179	135	103	51	179	157
렌터카 사업부문	112	102	93	87	162	110	89	40	151	132
여행 사업부문	18	20	6	-3	17	25	14	11	28	26
OPM(%)	13.8%	13.5%	12.0%	9.2%	17.0%	14.3%	11.6%	6.7%	19.4%	16.0%
렌터카 사업부문	13.5%	12.7%	12.5%	10.7%	17.0%	13.1%	11.2%	6.0%	18.6%	15.1%
여행 사업부문	16.2%	19.4%	7.4%	-3.0%	16.2%	23.8%	15.1%	11.1%	25.7%	23.3%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간 실적 Table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2,621	3,382	3,589	3,656	**3,618**
렌터카 사업부문	2,356	3,000	3,186	3,259	**3,198**
여행 사업부문	264	382	403	397	**420**
영업이익	363	388	436	468	**556**
렌터카 사업부문	370	342	394	401	**465**
여행 사업부문	-7	46	42	66	**91**
OPM(%)	13.9%	11.5%	12.1%	12.8%	**15.4%**
렌터카 사업부문	15.7%	11.4%	12.4%	12.3%	**14.5%**
여행 사업부문	-2.6%	12.0%	10.3%	16.7%	**21.7%**

자료: 레드캡투어,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Historical Valuation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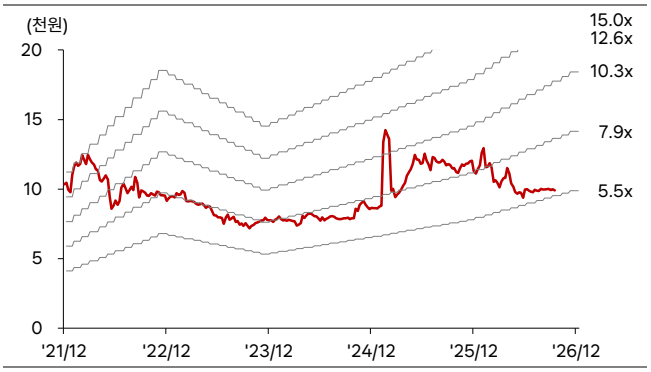
현재 동사 주가는 PER 5.5x, PBR 0.8x로 과거 Band 하단에 위치

레드캡투어의 주가는 2022년 이후 PER Band 5.5x~15.0x, PBR Band 0.6x~1.2x 수준에서 형성되었다. 2026년 추정 실적 기준 현재 동사 주가는 PER 5.5x, PBR 0.8x로 PER, PBR 모두 Band 하단에 위치하고 있다.

동사 주가는 2022년 초 10,000원 수준에서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로 4월 13,00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과 코스닥시장 약세, 렌터카 업종의 밸류에이션 하락이 맞물리며 주가가 하락하였다. 2023년에는 금리 상승과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으며, 하반기 코스닥시장 약세가 더해지면서 주가는 7,10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2024년에는 코스닥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11월 발표된 3분기 실적과 자기주식 소각·무상증자 결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12월 초 9,30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여행 업종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 전환하였다. 2025년 2월에는 주당 2,000원의 결산배당 결정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14,00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배당락 이후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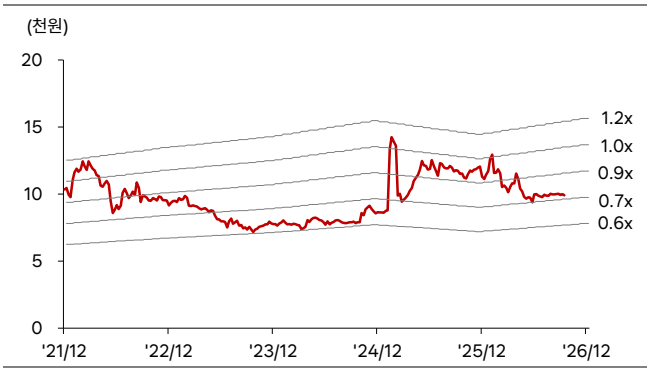
2026년 2월 동사 주가는 코스닥시장 반등과 함께 13,000원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3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여행 수요 위축 우려로 여행 업종의 투자심리가 약화되었다. 여기에 반도체 업종으로의 투자자금 집중과 5월 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수급 편중이 비반도체 업종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동사 주가는 6월 9,300원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10,000원 내외에서 형성되어 있다.

PER Band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PBR Band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PEER 그룹 Valuation 비교

롯데렌탈 대비 할인된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음

레드캡투어와 같이 장기렌터카·기업출장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국내 상장사는 제한적이다. 이에 당사는 동사 매출의 89.2%(2025년 총매출 기준)가 발생하는 렌터카 사업을 기준으로 롯데렌탈을 PEER 그룹으로 선정하였다. 롯데렌탈의 2026년 실적 기준 밸류에이션은 PER 13.7x, PBR 1.1x(ROE 8.3%)로, 동사는 PER 5.5x, PBR 0.8x(ROE 14.3%)로 롯데렌탈 대비 할인된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다.

롯데렌탈은 호텔롯데를 최대주주로 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2026년 6월 말 전국 렌터카 인가대수의 19.2%를 보유한 업계 1위 사업자이다. 2025년 매출 비중은 차량렌탈 65.1%, 중고차 판매 27.7%, Biz렌탈 등 7.2%이다. 차량렌탈은 1년 이상의 장기대여와 1년 미만의 단기대여, 카셰어링으로 구성되며, 렌탈 기간이 종료된 차량은 자체 중고차 경매장과 해외 법인을 통해 매각하고 있다. 이 밖에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OA기기·계측장비·산업설비 렌탈과 종속회사 롯데오토리스의 상용차 리스·중고차 할부금융을 영위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2026년 8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 지분 61.17%를 TPG 계열 렉시콘코리아홀드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최대주주 변경 추진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와 주주환원 강화 기대가 반영되며 롯데렌탈 주가는 2026년 6월 말 대비 현재까지 75% 이상 상승하며 동사 대비 할증된 멀티플을 적용받고 있다.

PEER 그룹 실적 Table (단위: 원, 억원, 배, %)

		레드캡투어	롯데렌탈	평균
코드		A038390	A089860	
현재 주가 (10/23)		9,820	50,800	
시가총액		1,642	18,445	
매출액	2023	3,382	27,523	
	2024	3,589	27,924	
	2025	3,656	29,188	
	2026F	3,618	30,498	
영업이익	2023	388	3,052	
	2024	436	2,848	
	2025	468	3,125	
	2026F	556	3,497	
영업이익률	2023	11.5	11.1	
	2024	12.1	10.2	
	2025	12.8	10.7	
	2026F	15.4	11.5	
순이익	2023	166	1,200	
	2024	202	1,068	
	2025	237	1,276	
	2026F	300	1,350	
EPS 성장률	2023	-21.7	27.1	
	2024	22.2	-10.9	
	2025	19.7	20.5	
	2026F	26.9	4.4	
PER	2023	8.1	8.5	
	2024	7.3	10.3	
	2025	8.1	9.0	
	2026F	5.5	13.7	13.7
PBR	2023	0.7	0.7	
	2024	0.7	0.7	
	2025	1.0	0.7	
	2026F	0.8	1.1	1.1
ROE	2023	8.4	9.0	
	2024	9.6	7.5	
	2025	11.4	8.4	
	2026F	14.3	8.3	8.3
PSR	2023	0.4	0.4	
	2024	0.4	0.4	
	2025	0.5	0.4	
	2026F	0.5	0.6	

주: 1) 레드캡투어의 미래전망치는 당사 전망치, 경쟁사의 미래전망치는 컨센서스 기준, 2) 시가총액과 주가는 10월 23일 종가 기준

자료: FnGuide,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증가로 순이익 개선을 제약

부채비율이 2026년 6월 말 251.3%인 상황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동사의 리스크 요인이다. 월 대여료는 계약기간 동안 동일하게 발생하는 반면 금융비용은 차입금 잔액과 조달금리에 따라 변동한다. 기준금리가 0.50%에서 3.50%로 인상된 2021~2023년에는 차입금 증가와 조달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58.8억원에서 193.7억원으로 증가하며 이자보상배율이 3.5배에서 2.0배로 하락하였다. 2026년 2분기 금융비용은 48.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2% 증가하였다. 2026년 7월과 8월 기준금리 인상분이 차입 금리에 반영되면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2,621	3,382	3,589	3,656	3,618
증가율(%)	14.5	29.0	6.1	1.9	-1.0
매출원가	398	723	810	945	992
매출원가율(%)	15.2	21.4	22.6	25.8	27.4
매출총이익	2,223	2,659	2,779	2,710	2,627
매출이익률(%)	84.8	78.6	77.4	74.1	72.6
판매관리비	1,860	2,271	2,343	2,242	2,070
판관비율(%)	71.0	67.1	65.3	61.3	57.2
EBITDA	1,518	1,835	1,955	1,943	2,068
EBITDA 이익률(%)	57.9	54.3	54.5	53.1	57.2
증가율(%)	11.8	20.9	6.6	-0.6	6.4
영업이익	363	388	436	468	556
영업이익률(%)	13.9	11.5	12.1	12.8	15.4
증가율(%)	77.4	6.7	12.4	7.4	18.9
영업외손익	-92	-181	-183	-157	-171
금융수익	8	14	23	20	21
금융비용	100	194	206	179	193
기타영업외손익	-1	-1	0	2	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71	206	253	310	386
증가율(%)	70.9	-23.9	22.5	22.8	24.2
법인세비용	59	40	50	74	85
계속사업이익	212	166	202	237	30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212	166	202	237	300
당기순이익률(%)	8.1	4.9	5.6	6.5	8.3
증가율(%)	75.6	-21.7	21.7	17.0	26.9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12	166	202	237	300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652	1,071	1,127	1,133	1,197
현금성자산	289	632	725	750	782
단기투자자산	0	0	1	0	0
매출채권	183	193	161	149	177
재고자산	16	47	82	38	38
기타유동자산	163	199	159	196	200
비유동자산	5,566	6,356	5,845	5,970	6,340
유형자산	5,249	6,141	5,654	5,820	6,204
무형자산	131	76	49	38	36
투자자산	2	1	0	0	0
기타비유동자산	184	138	142	112	100
자산총계	6,219	7,428	6,972	7,103	7,537
유동부채	2,107	2,798	2,761	2,792	3,077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446	438	450	598	483
기타유동부채	1,661	2,360	2,311	2,194	2,594
비유동부채	2,184	2,588	2,055	2,298	2,281
사채	544	573	693	613	611
장기차입금	1,381	1,779	1,173	1,561	1,557
기타비유동부채	259	236	189	124	113
부채총계	4,291	5,385	4,816	5,090	5,358
지배주주지분	1,927	2,042	2,157	2,013	2,179
자본금	43	43	85	85	85
자본잉여금	633	633	111	111	111
자본조정 등	-77	-51	-9	-9	-9
기타포괄이익누계액	0	0	0	-0	-0
이익잉여금	1,328	1,416	1,970	1,826	1,993
자본총계	1,927	2,042	2,157	2,013	2,179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01	-714	765	249	-121
당기순이익	212	166	202	237	300
유형자산 상각비	1,113	1,403	1,472	1,460	1,500
무형자산 상각비	42	44	47	15	12
외환손익	0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2,025	-2,344	-1,010	-1,513	-1,934
기타	57	17	54	50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0	5	-22	-9	-7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0	0	0	0	0
유형자산의 감소	2	1	0	3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14	-6	-5	-9	-9
기타	-8	10	-17	-3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59	1,052	-650	-215	287
차입금의 증가(감소)	421	944	-699	213	422
사채의증가(감소)	296	195	164	-5	-2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66	-74	-84	-385	-134
기타	8	-13	-31	-38	1
기타현금흐름	-0	0	0	-0	-126
현금의증가(감소)	38	343	93	25	32
기초현금	251	289	632	725	750
기말현금	289	632	725	750	782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7.7	8.1	7.3	8.1	5.5
P/B(배)	0.8	0.7	0.7	1.0	0.8
P/S(배)	0.6	0.4	0.4	0.5	0.5
EV/EBITDA(배)	3.0	2.7	2.3	2.6	2.5
배당수익률(%)	4.7	5.8	25.0	7.0	8.2
EPS(원)	1,236	968	1,183	1,416	1,797
BPS(원)	11,219	11,889	12,899	12,037	13,034
SPS(원)	15,255	19,686	20,968	21,862	21,640
DPS(원)	450	450	2,150	800	800
수익성(%)					
ROE	11.5	8.4	9.6	11.4	14.3
ROA	3.8	2.4	2.8	3.4	4.1
ROIC	6.6	5.8	6.3	6.8	7.9
안정성(%)					
유동비율	31.0	38.3	40.8	40.6	38.9
부채비율	222.7	263.7	223.3	252.9	245.8
순차입금비율	151.6	180.3	141.4	159.9	165.5
이자보상배율	3.6	2.0	2.1	2.6	2.9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5	0.5	0.5	0.5	0.5
매출채권회전율	17.6	18.0	20.3	23.6	22.2
재고자산회전율	268.1	106.2	55.5	60.8	94.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레드캡투어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0.28	레드캡투어-안정적인 실적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2023.11.17	레드캡투어-B2B 장기렌터카 사업 중심으로 수익성 높은 기업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